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

천경록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6065).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고찰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의 계열성(系列性: sequence)을 높이기 위함이다. 계열성은 위계성, 연계성 등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 내용의 종적 조직 원리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은 ‘점점 넓게, 점점 깊게’ 배열된다. 계열성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을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학년에 배치하는 문제로 보고자 한다(Smith 등, 1957: 170; 천경록, 2013: 288-90).

우리는 여러 차례 국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내용의 계열성을 높이려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된 교육과정의 계열성 정도가 수락할 만한 것 인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계열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이창수, 2013: 13).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송현정 등(2004)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계열성을 위시하여 교육과정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 교사,

교수 및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계열성이 낮은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고, 설문 참여자들의 인상적인 반응만 확인하게 된다.¹

개별 연구자가 영역 전문가로서 전문적 안목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민현식(2002)의 연구에서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을 대상으로 성취기준의 위계성²을 분석하고 위계성 정도가 낮은 성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런 방법은 영역 전문가가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토대로 부적절한 성취기준을 찾아내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자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주관적 추정에 의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교육과정 개발 기관에서 연구 협의회를 통한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협의회에서는 참여자들 사이의 인간관계, 예컨대 특정 학교의 사제 관계나 선후배 관계 등과 같은 문제로 유력한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워크숍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미리 분석 기준과 분석 도구를 타당화 시킨 후에, 관련 전문가들로 분석 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실시하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분석 방법을 숙지한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게 된다. 이 방법은 대규모 설문 조사의 단점과 전문가 1인의 인상적 평가의 제한점, 연구 협의회를 통한 평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2011년 고시본, 이하 2009 교육

1 설문 조사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연구에서는 'sequence'의 용어로 계열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천경록(2013)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가 'sequence'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위계성'을 사용한 경우를 인용할 때에는 선행 연구자의 뜻을 존중하여 '위계성'으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과정으로 명명)의 공통과정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2009 교육과정의 계열성 정도가 전반적으로 수락할 만한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 현저하게 계열성을 위배하고 있는 성취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왜 그러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선행 연구 고찰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과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와 같은 주제를 탐구한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수행에 시사를 주었던 국어과 다른 영역의 연구와 인접 교과 교육 연구도 일부 포함시켰다.

먼저 분석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고순원(1996)은 계열성 원리로 “① 단순에서 복잡으로의 원리, ② 친숙에서 미친숙으로의 원리, ③ 선수 학습에서 후속 학습으로의 원리, ④ 구체 개념에서 추상 개념으로의 원리, ⑤ 부분 개념에서 전체 개념으로의 원리, ⑥ 하위 기능에서 상위 기능으로의 원리, ⑦ 전체 개념에서 부분 개념으로의 원리, ⑧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원리”의 여덟 가지를 선정하였다(pp. 39-40). 이를 토대로 2차 교육과정기와 5차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산수과와 자연과의 교과서 단원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을 전공하는 교사 3명과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교사 5명으로 분석 위원을 구성하여 교과서 단원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에 따라 사용된 계열성 원리가 달랐으며, 2차와 5차 교육과정에 사용된 원리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산수과에서는 ‘단순에서 복잡으로, 선수 학습에서 후속 학습으로’의 원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연과에서는 ‘친숙에서 미친숙으로, 구체 개념에서 추상 개념으로’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위승우(1999)는 연구자 단독으로 6차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계열성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문학 텍스트의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문학 교육과정 내용의 경우, 학년별 내용 체계에서 위계성이 발달 단계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었고, 반복 심화의 계열성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진단하였다(p.66). 그러나 교과서의 문학 텍스트의 계열성은 ‘장르, 주제, 텍스트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나 ‘계열성이 약하다(p.77)’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양선(2010)에서도 연구자 단독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1~4학년의 읽기 교과서 단원 목표를 분석하여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기초기능과 고등사고기능으로 나누어 학습 요소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기초기능은 계열성이 있었고, 고등사고기능은 세부 요소 별로 계열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p.85).

그 다음으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이었다. 예를 들어, 송현정 등(2005)의 연구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7차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면서 7차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진단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p.177)

3. 제7차 국어과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어진 시수에 비해 제시된 내용 항목 수가 너무 많거나 적다.
 - ☐ ② 제시된 내용 항목의 난이도가 학습자 발달 수준에 안 맞다.
 - ☐ ③ 제시된 내용 항목의 교육적 타당도 또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 ☐ ④ 학년간 또는 영역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이 떨어진다.
 - ☐ ⑤ 기타 _____

표 1. 설문 결과 :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반응(p.97, 104, 117)

집단	교육과정의 문제점	학습 양	난이도	내용 타당성	위계성	기타	계
초등 교사	빈도수 (%)	346 (61.7)	118 (21.0)	52 (9.3)	30 (5.3)	15 (2.7)	561 (100.0)
중학 교사	빈도수 (%)	217 (67.8)	33 (10.3)	29 (9.1)	34 (10.6)	7 (2.2)	320 (100.0)
교수, 전문가	빈도수 (%)	3 (12.0)	6 (24.0)	4 (16.0)	11 (44.0)	1 (4.0)	25 (100.0)

위의 표에는 보듯이 초등학교 교사의 5.3%만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위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61.7%의 교사들이 학습 양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은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계열성이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³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계열성 정도를 진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결과는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점을 서너 가지 제시한 후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런 질문을 대하였을 때 응답자가 내용의 계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에 반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위의 표에 나타난 대로 단지 5.3%의 교사만이 계열성이 문제라고 반응하였다고 해서 7차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참고로 이 문항에 대하여 표 1에서 보듯이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은 응답자의 44%가 계열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고 있다.

둘째, 국어과는 여섯 영역으로 되어 있다.⁴ 위의 설문 문항은 여섯 영역 모두를 포함한 전체적인 인상을 묻은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

3 실제로 이인제 등(2005: 9)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7차 교육과정의 위계성을 '적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 고시)에서는 '말하기'와 '듣기'를 통합했기 때문에 다섯 영역으로 개발하였다.

로는 어떤 영역에서 계열성이 높거나 낮은지 알 수 없다. 교육과정 내용의 계열성 정도는 영역별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 영역별로 계열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설문 조사 항목 구성이 어렵다. 위의 인용한 문항 경우에서 '② 제시된 내용 항목의 난이도가 학습자 발달 수준에 안 맞다.'는 것은 난이도에 대한 질문인데, 이는 실제로는 계열성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문항②와 문항④는 같은 내용을 질문한 셈이다. 이처럼 설문 조사의 경우 체계적인 조사 문항 구성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끝으로, 국어과에 학년별 영역별로 제시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성취기준)이 계열성이 낮은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경우, 공통 과정에 30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각각 이전 학년과 이후 학년 사이에 계열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중에 계열성이 양호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구체적 성취기준의 계열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개선할 성취기준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순영 등(2012)에서도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2009 개정 국어과 읽기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내용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초중고 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내용의 타당성, 진술의 명료성, 수준의 위계성, 적정 수업 시수'의 네 가지 준거로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은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읽기의 위계성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읽기 성취기준은 4.41, 중학교 성취기준은 3.97로 나타났다(p.333). 읽기 영역의 계열성은 듣기·말하기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모두 현장 교사였다는 점, 교사들은 개별 성취기준에 대한 판단을 주로 수업의 실행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p.342)을 고려할 때,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제시는 수업의 실행 가능성 이외에도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 요구, 배경 학문의 요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방법의 면에서 설문 조사 연구와 분석 연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조사 연구의 경우, 여러 영역이 나뉘어 있고, 여러 내용(성취기준)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계열성 정도를 판단하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연구로는 설령 계열성이 낮다고 반응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의 어떤 성취기준이 계열성이 낮은지 알 수 없다. 분석 연구는 주로 개인 단독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명확한 분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연구 대상의 면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분석한 연구와 교과서 단원 목표나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교과서 단원이나 텍스트의 계열성도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단원 목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상세화해서 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계열성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교육 내용의 학년 배치가 조정된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육 내용의 학년 배치가 부적절하였음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

셋째, 분석자의 면에서 고순원(1999)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연구자 개인이 단독으로 감식안적(connoisseur)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분석자를 개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고순원의 연구에서도 분석자들은 모두 현장 교사들이었다.

끝으로, 분석 도구의 면에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하거나 리커트식의 척도만 제시하고 있었다. 좀 더 명확한 분석 기준과 분석 절차, 분석 도구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 기준과 분석 도구를 개발한 후에 읽기 영역의 전문가 다수를 참여시켜 체계적으로 계열성 정도를 진단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의 주요 절차는 표 2와 같았다. 연구자가 분석 기준과 분석 도구를 개발한 후에 워크숍에서 이를 분석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분석 위원들은 분석 방법을 공유하고, 몇 개의 기준에 대해 분석 연습을 하였다. 이후 개인적으로 분석한 후 기초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2. 연구의 주요절차

주요 절차	주요 내용	비고
분석 기준 개발	분석 기준 개발, 예비 분석, 수정 보완, 확정	
분석 도구 개발	분석결과표, 연습 자료 등을 개발	
분석 위원회 구성	읽기 전문가 6명으로 위원회 구성	
분석 위원 워크숍	분석 기준, 도구, 절차, 주의점 설명, 분석 연습	
계열성 판단	분석 위원들이 개인별로 계열성 분석표 작성	
자료 코딩, 해석	분석 결과 종합, 정리, 해석, 판정	

2. 분석 위원회 구성

분석 위원들로는 읽기 교육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초·중·등 현장의 중견 교사 여섯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임용고시나 수능능력 시험 등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학과 교육 연수원 등에서 국어과 교육 관련 강의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표 3. 분석 위원들의 배경 변인

성		소속		교육 경력		주요 연구 경력
남	3	초등	3	10년~15년	1	-성취기준, 평가기준 개발 위원
여	3	중등	3	16년~20년	4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개발
				21년~25년	1	-성취도 평가, 수능, 임용고사 등 출제 및 검토 위원

선행 연구(송현정 외, 2004)의 설문 연구 결과, 계열성 정도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연구자들의 의견이 달랐다(앞의 표 1 참조). 이는 교육과정 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과 연구자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위원으로 현장 교사이면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위원들을 섭외한 것은 교사의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을 두루 갖추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계열성 정도를 판단 해 줄 수 있는 전문적 안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 분석 도구

1) 분석 안내서와 분석 대상

분석의 개요, 분석 절차, 분석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위 크숍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09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년별로 배정한 일람표를 제시하였다(표 4 참조). 여기에는 학년군별 글의 수준과 범위도 포함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2011 고시)은 학년군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성취 기준의 위계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검정 교과서의 차이로 인한 전학생(轉學生) 등의 학습 중복과 결손을 예방하며, 평가 기준이 학년별로 혼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취기준의 학년별 배치를 제안하였다(민현식 외, 2011: 241-3). 이 연구에서는 이것

을 학년 배치의 근거로 삼았다.

표 4. 2009 교육과정 읽기 영역 성취기준

학년군	성취 기준	학년 배치
초 1-2	1-2-(1) 글자의 짜임을 이해하여 글자를 읽고,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1-2-(2) 낱말과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1
	1-2-(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1-2-(5) 글의 내용을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1-2-(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2
초 3-4	3-4-(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3-4-(2) 글쓴이의 마음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는다. 3-4-(3) 읽기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읽는다.	3
	3-4-(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3-4-(5)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4-(6) 글에 대한 경험과 반응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4
초 5-6	5-6-(1)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5-6-(2) 글의 짜임에 따라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5-6-(3)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5-6-(4)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이를 적용한다.	5
	5-6-(5)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5-6-(6)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5-6-(7)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한다.	6
중 1-3	7-9-(1)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 읽기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 7-9-(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7-9-(3)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 7-9-(4) 설명 방식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7
	7-9-(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7-9-(6)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 7-9-(7)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 7-9-(8) 글의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8
	7-9-(9)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독자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7-9-(10)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조절한다. 7-9-(1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

2) 분석 기준

선행 연구(천경록, 2013: 300)에서 제안된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 원리를 토대로 계열성 분석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것을 교육과정을 전공한 교

수 1명, 국어과 교육과정을 전공한 박사(현직 교사) 1명, 현직 교사 1명 등 세 명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후, 표 5와 같은 분석 기준을 확정하였다.

표 5.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 기준

1. 지식 관련	1.1 개념 : 기초 개념에서 응용 복합적 개념으로 배열 1.2 명제 : 기초 명제에서 응용 복합적 명제로 배열
2. 기능 관련	2.1 기초성 : 단순 기초 기능에서 응용, 복합, 고등 기능으로 배열 2.2 활용성 : 활용성이 높은 기능에서 제한적인 용도의 기능으로 배열 2.3 초인지 : 인지 기능에서 초인지 기능으로 배열
3. 태도 관련	3.1 흥미 :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고려하여 배열 3.2 습관 : 읽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배열 3.1 가치 :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배열
4. 텍스트 관련	4.1 종류 : 기본 장르—변종 장르로, (정서)—정보—설득 장르로, (이야기체 글) → 설명체 글로 반복 심화하여 배열 4.2 주제 : 개인적 주제—사회적 주제—보편적 주제로 배열 4.3 난이도 : 쉬운 텍스트에서 어려운 텍스트로 배열
5. 학습 활동 관련	5.1 탐구 : 학습자의 탐구력을 자극하도록 배열 5.2 절차 : 선수학습—본학습—후속학습의 선수 관계를 고려하여 배열 5.3 발달 : 해당 학년 학습자의 읽기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배열

분석 기준의 대범주는 ‘지식, 기능, 태도, 텍스트, 학습 활동’의 다섯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읽기 교육 내용을 산출하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지식, 기능, 태도, 실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런데 ‘실제’는 주로 텍스트와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텍스트’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교수·학습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학습 활동’ 범주를 추가하였다.

대범주별로 제시된 세부 기준은 모두 14개로 개발하였다. 실제로 계열성을 분석할 때에는 세부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부 원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상호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다. 각각의 세부 원리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 텍스트 관련’의 세부 기준인 ‘4.2. 주제’와 ‘4.3 난이도’는 실제 텍스트가 제시되어야 분석 가능하다. 이 기준은 교과서의 계열성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사이의 계열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기

준은 제외하고 ‘4.1 종류’만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한 두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⁵

1. 지식 관련은 읽기에 관한 지식 요소를 배열하는 원리이다. 읽기와 관련된 개념이나 명제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점점 심화 되도록 배열한다. 성취기준에 포함된 글(제재)과 관련된 개념 특성은 ‘5.1 글의 종류’에서 주로 반영하도록 하고, ‘1.1 개념’에서는 읽기 내용 관련 개념의 선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1.1 개념은 읽기 지식과 관련된 개념을 상하 관계나 분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성취기준에 포함된 개념이 이전 학년의 성취기준이나 이후 학년의 성취기준에 포함된 개념에 비해 상하나 분류의 관계에서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가르치고, 부수적이고 응용적인 개념, 복합적인 개념으로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가는 정도를 판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취기준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1-2-(6)’과 ‘중심 생각3-4-(4)’ 이란 개념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좀 더 명료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의 적절성을 판단한다.⁶

1.2 명제는 명제 내용의 상하 관계나 분류 관계에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명제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국어과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 안다’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은 명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문단의 개념 알기, 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 사전의 종류 알기’ 등은 일종의 명제들이다. 이들은 ‘명제적 지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명제 관계에 따라 읽기 내용을 배열할 때에는 성취기준에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성취기준에 전제된 명제 사이의 상하 관계나 분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적이

5 여기서의 지면 관계로 일부만 보인다. 세부 기준 전체에 대한 설명은 천경록(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개념의 경우 ‘전체 개념에서 부분 개념으로’와, ‘부분 개념에서 전체 개념으로’의 상반된 원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순원(1996)에서는 이 둘을 동시에 계열성 원리로 채택하고 있었다(pp. 23-25).

고 단순한 명제에서 복잡적이고 응용적인 명제로 배열한다. 예를 들어, ‘글자의 짜임 알기 → 낱말의 짜임 알기 → 문단의 짜임 알기 → 글의 짜임 알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된다. 이러한 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면 된다.

3) 분석 결과 정리표와 분석 척도

분석 위원들이 분석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표 6과 같은 결과 정리표를 엑셀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면 관계로 일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분석 결과 정리표(일부, 예시)

성취 기준	학년 배치	1. 지식		2. 기능			3. 태도			4. 텍스트	5. 활동			종합	기타 이유
		1.1 개 념	1.2 명 제	2.1 기 초	2.2 활 용	2.3 초 인	3.1 흥 미	3.2 습 관	3.3 가 치	4.1 종 류	5.1 탐 구	5.2 절 차	5.3 발 달		
3-4-(1)	3	0	0	-1	-1	0	NA	0	0	-1	0	-1	1	-1	

분석 위원들은 각각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계열성, 곧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의 적절성 정도를 판단한다. 분석 척도는 세부 기준별로 7점 척도(-3, -2, -1, 0, 1, 2, 3)로 판단한다(아래 표 7 참조).

표 7. 분석 척도표

척도	의미		비고
3	3개 학년 이상 상향 배치	↓ ↑	점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성취기준이 부적절해서 (이를테면, 어렵거나 복잡해서) 학년 배치를 상향 조정해야만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양호해진다는 뜻
2	2개 학년 상향 배치		
1	1개 학년 상향 배치		
0	현재의 학년 배치 적절	↓ ↑	적정(at grade)
-1	1개 학년 하향 배치		점수가 낮아질수록 해당 성취기준이 부적절해서 (이를테면, 쉽거나 단순해서) 학년 배치를 하향 조정해야만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양호해 진다는 뜻
-2	2개 학년 하향 배치		
-3	3개 학년 이상 하향		
		부적절	

적도에는 적절성 정도와 부적절성의 방향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0에 가까울수록 적절하다는 의미이고, -3이나 3에 가까울수록 부적절한데, -3에 가까우면 학년보다 쉽고 단순해서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며, 3에 가까울수록 학년보다 어렵고 복잡해서 부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분석 위원들은 어떤 세부 기준에서는 해당 성취기준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NA(not applicable) 표시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성취기준은 ‘3.태도’ 중에서 ‘3.1 흥미’ 기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NA’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능하면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세부 기준별로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종합’ 란에는 세부 기준을 고려하지 말고, 분석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 적절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종합 판정은 세부 기준의 평균이 아니라 성취기준의 적절성을 ‘총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분석 위원들은 세부 기준별로는 부적절성이 있지만 그러한 부적절성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피치 못할 사유로 인정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의 적절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4. 분석 단계 및 결과 정리

분석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제1단계는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였다. 판단 대상인 성취기준과 배치 학년, 관련된 글의 수준과 범위를 표 4에서 확인하였다.

제2단계는 세부 기준별로 성취기준의 계열성을 판단하는 단계였다. 분석 기준인 표 5에 조회하여, 각각의 성취기준에 대하여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 계열성 정도(즉, 교육 내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내용의 수준이 점점 깊

어지는 정도)를 -3에서 +3까지 중에 하나로 판단하여 표 6의 분석 정리표에 기록하였다.

제3단계는 판단을 조정하는 단계였다. 각 성취기준별로 횡적(橫的)으로 판정을 마쳤으면, 표 6을 토대로 세부 기준별로 종적(縱的)으로 다시 살펴 보면서 계열성 정도를 조정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1.1 개념 항을 세로로 훑어 보면서 선후 학년의 개념들 사이의 계열성의 정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판단을 조정하게 하였다.

분석 위원 중에 3명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3명은 중등학교 교사였다. 계열성은 교육 내용 배열의 종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통 교육 기간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1학년에서부터 9학년까지의 성취기준에 대해서 계열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여섯 명의 분석 위원들의 자료를 얻어서 연구자가 엑셀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계열성 정도의 전반적 경향

성취기준별로 분석 위원들의 판단 결과를 평균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았다. 전체 평균은 0.08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별 평균은 -0.01에서 0.18까지의 수치로 나타났다.

표 8. 성취기준별 계열성 분석 결과(계속)

성취 기준	학년 배치	1.지식		2.기능			3.태도		
		1.1 개념	1.2 명제	2.1 기초성	2.2 활용성	2.3 초인지	3.1 흥미	3.2 습관	3.3 가치
1-2-(1)	1	0.33	0.17	0.00	0.00	0.00	0.00	0.00	0.00
1-2-(2)	1	0.00	0.00	0.00	0.17	0.00	0.00	0.00	0.00
1-2-(3)	1	0.33	0.50	0.40	0.83	1.25	0.40	0.40	0.25
1-2-(4)	2	0.17	0.17	0.00	0.50	0.67	0.17	0.20	0.00
1-2-(5)	2	0.00	0.17	0.00	0.17	0.20	0.00	0.20	0.20
1-2-(6)	2	0.00	0.00	0.17	0.00	0.25	0.00	0.00	0.00
3-4-(1)	3	0.17	-0.20	-0.17	0.17	0.00	0.00	0.00	0.00
3-4-(2)	3	0.00	0.33	0.40	0.50	0.40	0.20	0.60	0.00
3-4-(3)	3	0.67	0.67	0.20	0.17	0.20	0.20	0.20	0.20
3-4-(4)	4	-0.33	-0.17	-0.50	-0.33	0.00	0.00	0.00	0.00
3-4-(5)	4	0.83	0.50	1.00	1.00	0.40	0.75	0.40	0.33
3-4-(6)	4	-0.33	-0.60	-0.33	-0.17	0.00	0.00	0.20	0.00
5-6-(1)	5	-0.17	0.00	-0.50	0.00	0.20	0.00	0.00	0.00
5-6-(2)	5	0.00	-0.17	-0.17	-0.33	0.00	0.00	0.00	0.00
5-6-(3)	5	0.50	0.33	0.17	0.17	0.20	0.00	0.25	0.00
5-6-(4)	5	0.40	0.50	0.33	0.67	0.40	0.00	0.20	0.00
5-6-(5)	6	0.00	0.17	0.17	0.17	0.20	0.00	0.00	0.00
5-6-(6)	6	0.17	0.00	0.00	0.17	0.20	0.20	0.00	0.00
5-6-(7)	6	-0.20	-0.20	0.17	-0.17	0.00	0.00	0.00	-0.40
7-9-(1)	7	0.33	0.00	0.33	0.17	0.00	0.00	0.40	0.00
7-9-(2)	7	0.50	0.50	0.67	1.17	0.40	0.25	0.20	0.00
7-9-(3)	7	-0.20	0.00	0.00	0.17	0.40	0.20	0.00	0.00
7-9-(4)	7	-0.17	0.00	0.00	-0.17	0.00	0.20	0.40	0.00
7-9-(5)	8	0.33	0.17	0.17	0.17	0.00	0.20	0.20	0.33
7-9-(6)	8	-0.50	-0.50	-0.67	-0.17	-0.17	-0.33	-0.40	-0.40
7-9-(7)	8	0.00	-0.17	0.00	0.17	0.20	0.00	0.00	0.00
7-9-(8)	8	0.00	0.33	0.17	0.50	0.20	0.00	0.00	0.00
7-9-(9)	9	0.00	-0.33	-0.33	-0.17	0.20	0.00	0.00	0.00
7-9-(10)	9	0.20	0.33	0.17	0.33	0.17	0.00	0.20	0.00
7-9-(11)	9	-0.83	-0.50	-0.17	-0.50	-0.60	-1.20	-1.00	-0.67
평균		0.07	0.07	0.06	0.18	0.18	0.04	0.09	-0.01

성취 기준	학년 배치	4. 텍스트	5. 활동			평균
		4.1 종류	5.1 탐구	5.2 절차	5.3 발달	
1-2-(1)	1	0.00	0.17	0.00	0.00	0.06
1-2-(2)	1	0.00	0.17	0.00	0.00	0.03
1-2-(3)	1	0.00	0.50	0.33	0.50	0.48
1-2-(4)	2	0.00	0.00	0.33	0.33	0.21
1-2-(5)	2	0.00	0.00	-0.17	0.17	0.08
1-2-(6)	2	0.00	0.17	0.00	0.00	0.05
3-4-(1)	3	-0.17	-0.17	0.00	0.17	-0.02
3-4-(2)	3	0.00	0.00	0.33	0.33	0.26
3-4-(3)	3	0.17	0.50	0.33	0.33	0.32
3-4-(4)	4	0.00	-0.17	-0.17	-0.33	-0.17
3-4-(5)	4	0.17	0.67	0.67	0.67	0.62
3-4-(6)	4	0.00	-0.17	0.00	-0.33	-0.14
5-6-(1)	5	0.00	-0.17	-0.33	0.00	-0.08
5-6-(2)	5	0.00	-0.17	0.00	-0.17	-0.08
5-6-(3)	5	0.33	0.33	0.17	0.33	0.23
5-6-(4)	5	0.33	0.00	0.17	0.50	0.29
5-6-(5)	6	0.00	0.00	0.17	0.17	0.09
5-6-(6)	6	0.00	0.17	0.33	0.00	0.10
5-6-(7)	6	0.17	-0.17	0.00	0.33	-0.04
7-9-(1)	7	0.00	0.33	0.17	0.00	0.14
7-9-(2)	7	0.17	0.50	0.50	0.50	0.45
7-9-(3)	7	0.00	-0.17	-0.17	0.00	0.02
7-9-(4)	7	0.00	0.00	0.00	-0.17	0.01
7-9-(5)	8	0.17	0.33	0.17	0.00	0.19
7-9-(6)	8	0.00	-0.50	-0.50	-0.67	-0.40
7-9-(7)	8	0.33	-0.17	0.17	-0.17	0.03
7-9-(8)	8	0.17	0.17	0.17	0.00	0.14
7-9-(9)	9	0.00	0.17	0.00	0.00	-0.04
7-9-(10)	9	0.00	0.17	0.00	0.00	0.13
7-9-(11)	9	0.00	-0.33	-0.33	-0.17	-0.53
평균		0.06	0.07	0.08	0.08	0.08

계열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기준은 다음 표 9와 같이 할 수 있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가 적절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3에 가까울수록 분석기준의 비추어 볼 때 해당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가 쉬워서 부적절하다는 뜻이며, 3에 가까울수록 해당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가 어려워서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분 점수(cut score)로 절대값 |0.5|와 |1.5|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여섯 명의 분석 위원의 평균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를 초과하게 되면 현재의 학년 배치를 유지하기보다는 학년 배치를 조정하자는 견해가 더 우세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 결과 해석 기준과 의미

의미	평균 범위	개선 방향
부적절 (해당 학년에 비해 쉬움)	-2.5 이상 -1.5 미만	2개 학년 하향
	-1.5 이상 -0.5 미만	1개 학년 하향
적절(해당 학년에 적절)	-0.5 이상 0.5미만	현재 유지
부적절 (해당 학년에 비해 어려움)	0.5 이상 1.5 미만	1개 학년 상향
	1.5 이상 2.5 미만	2개 학년 상향

표 9의 기준에 조회해 볼 때,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은 0.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세부 기준별로 살펴보면, ‘2. 기능 관련’에서 ‘2.2 활용성’과 ‘2.3 초인지’ 기준에서 0.18로 나타나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2.2 활용성’의 경우, 성취기준 3-4-(5)에서 1.00, 7-9-(2)에서 1.1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 초인지’의 경우, 성취기준 1-2-(3)에서 1.25로, 1-2-(4)에서 0.67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

3-4-(5)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7-9-(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2-(3)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1-2-(4) 글의 분위기를 살려 효과적으로 낭독하고 읽기의 재미를 느낀다.

3-4-(5)의 경우 설득적인 글을 읽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4학년 성취기준으로는 '2.2 활용성' 기준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7-9-(2)의 경우, 매체 문식성과 비판적 문식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성취기준인데 '2.2 활용성'의 면에서 중학교 1학년 성취기준으로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3)은 초등 1학년에 배치된 기준으로 띄어 읽기를 연습하는 것이지만 '2.3 초인지'의 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2-(4)도 그러하다. 이 외에 계열성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구분점수를 현저하고 일관성 있게 벗어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2. 학년 배치 조정 대상 성취기준

30개의 성취기준 각각에 대한 평균 점수는 표 8에서 보듯이 -0.53에서 0.62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 10.5%를 초과하여 학년 조정이 필요한 성취기준은 두 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았다.

3-4-(5)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0.62)

7-9-(1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0.53)

성취기준 3-4-(5)는 교육과정에 4학년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 기능 관련'에서 '2.1 기초성'과

‘2.2활용성’의 측면에서 4학년 수준에 비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득적인 글을 읽고 타당성 판단하는 것은 4학년 수준에서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 성취기준은 1개 학년을 상향시켜 5학년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구분 점수 10.5를 초과한 세부 기준은 1.1개념(0.83), 1.2명제(0.50), 2.1기초성(1.00), 2.2활용성(1.00), 3.1 흥미(0.75), 5.1탐구(0.67), 5.2절차(0.67), 5.3발달(0.67) 등이었다.

성취기준 7-9-(11)의 경우는 9학년 내용으로 배열되었지만 한 학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개념(-0.83), 1.2명제(-0.50), 2.2활용성(-0.50), 2.3초인지(-0.60), 3.1흥미(-1.20), 3.2습관(-1.00), 3.3가치(-0.67) 등의 세부 기준에서 1개 학년 하향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이 성취기준은 읽기의 태도와 관련된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학습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순영 등(2012)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순영 등(2012)에서는 설문 조사 연구 방법으로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에 대해 위계성 정도를 5점 척도의 리커트트로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초등학교 성취기준 4.41, 중학교 성취기준 3.97로 나타났으며(p.333), 평균 이하의 적합성을 보인 14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p.335). 본 연구에서 밝혀낸 두 개의 성취기준도 여기에 속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성의 방향도 결정하고, 계열성을 낮춘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질적 진술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계열성을 분석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세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분석 위원들이 ‘기타 이유’란에 진술하도록 하였다(위의 표 6 참조). 이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았다.

표 10. 성취기준의 계열성에 대한 분석 위원들의 기타 진술

성취기준	논평	비고
1-2-(1)	A 포함된 지식 요소가 학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2-(3)	D 주어부 서술부 등의 개념이 어려울 것임	
3-4-(1)	F '대강의 내용'과 '줄거리'의 구분이 어렵다.	
3-4-(2)	A 글쓴이 고려하기는 초3 수준에서 어려울 것	
3-4-(4)	D 중심 생각 파악하기는 3학년으로	
3-4-(5)	A 타당성 평가는 초5-6에서 다루어야 B 평가 관련은 학교 급별로 최상위 학년으로 E 의견 타당성 평가는 1개 학년 상위 학년으로	
5-6-(3)	A '추론' 용어는 학년에 비해 어려운 용어	
5-6-(4)	B 독서 방법의 적용은 상위 학년으로 이동 D 독서 상황과 방법의 이해와 적용은 상위 학년으로	
5-6-(7)	B 독서 습관 점검은 상위 학년으로 D 독서 습관에 대한 메타적 점검은 보다 상위 학년에서	
7-9-(1)	A 예측하기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지면 부담이 증가된다. D 예측하기는 기본 기능이므로 하위 학년부터 다루어야	
7-9-(4)	A 글 이면에 존재하는 설명 방식 파악은 어렵다.	
7-9-(5)	A 논증 개념의 이해가 어려울 것임.	
7-9-(6)	A 질문하기 8학년보다 낮은 학년에서 다루어야 D 질문하기는 7학년이나 6학년부터 다루어야	
7-9-(7)	A 둘 이상의 텍스트 비교는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7-9-(8)	A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많다. B 평가는 상위 학년으로	
7-9-(9)	A '정체성' 용어가 어렵다.	
7-9-(10)	A 점검 조정은 상위 학년으로	
7-9-(11)	A 7학년 정도에서 가능하다. G 전체 학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음	

A ~ F는 분석 위원들을 익명으로 표시한 것이다. 앞의 양적 분석에서 성취기준의 학년 배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결과가 나온 3-4-(5)와 7-9-(11)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결과가 일치함을 뜻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09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으로 제한하여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해 보았다. 계열성은 교육 내용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범위를 ‘점점 넓게’, 수준을 ‘점점 깊게’ 학년별로 배치하는 문제이다.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도구와 분석 절차를 개발하였다. 읽기 교육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초·중·등 현장 교사 6명으로 분석 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를 얻었다. 계열성의 판단 척도는 -3에서 3 사이의 7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0에 가까울수록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년 배치가 적절하다는 뜻이 된다. 학년 배치의 상향이나 하향의 조정을 판정하는 구분 점수는 절대값 0.5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09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 판단의 평균은 0.08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 조정이 필요한 0.5보다 작은 수치이다. 이로 보아 2009 개정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전반적인 계열성 정도는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계열성에 대한 세부 기준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세부 기준별로 -0.01에서 0.18까지의 수치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0.5 미만이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의 성취기준별로 계열성을 진단해 본 결과, 공통 과정 읽기 영역에 제시된 30개의 성취기준 중에 28개의 성취기준이 현재의 학년이 배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성취기준이 1개 학년 이상 상향이나 하향으로 학년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5) 글쓰기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성취기준은 초등 4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나 1개 학년 상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7-9-(1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성취기준은 중학교 3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나 정의적 영역의 내용을 고려하

여 1개 학년 하향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학년 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예산의 제한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계열성 정도를 진단하였다. 앞으로 2007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 도구와 절차를 동원하여 계열성 정도를 분석하여 본다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계열성 정도가 개선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도구와 절차들은 향후 국어과 다른 영역이나 인접 교과와 계열성 정도를 진단할 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순원(1996), 『초등학교 교육과정 조직에 적용된 계열성 원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연구 개발(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0), pp. 71~129.
- 송현정 외(2004), 『국어과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 RRC 200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승우(1999), 『초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의 내용 계열성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영 외(201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성취기준의 적합성 조사 연구-현장 교사들의 적합성 평가 반응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7, 한국독서학회.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5-7.
- 이창수(2010),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 경진.
- 천경록(2013), 「국어과 읽기 영역의 계열성 원리 고찰」, 『국어교육』 140, 한국어교육학회.
- 한양선(2010),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mith, B. O., Stanley, W. O., & Shores, J. H.(1957), *Fundamentals of Curriculum Development*, Harcourt, Brace & World.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 분석

천경록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계열성은 교육 내용의 종적 구성 원칙의 하나로, 교육 내용을 선후 관계에 따라 적합하게 학년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방법은 워크숍 방법을 사용하였다. 읽기 교육 연구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분석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와 절차를 마련한 후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얻었다. 분석 기준은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고려하여 5개 대범주에서 12개의 세부 기준이 사용되었다. 5개의 대범주는 지식, 기능, 태도, 텍스트, 학습 활동이었다.

분석 결과, 2009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계열성 정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세부 기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그리고 30개의 성취기준에 대하여 각각 계열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학년 배치를 조정해야 할 성취기준은 두 개 관찰되었다. 성취기준 3-4-(5)는 현재 4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나 1개 학년 상향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성취기준 7-9-(11)은 현재 9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나 1개 학년 하향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계열성, 읽기, 국어과, 교육과정, 학년 배치, 워크숍

ABSTRACT

Analyzing the Sequence of Reading Curriculum Contents⁷

Cheon, Gyeong-rok

This paper analyzed the sequence of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subject, specially reading contents. Sequence is arranging the curriculum contents according to the grade, semester, and units.

In this paper, sequence analysis tools and procedure were developed. Sequence criteria were consist of 5 types and 12 specific principles of reading. Five types are knowledge, skill, attitude, text, and learning activity according to curriculum contents frame. Sequence committee was consist of 6 reading specialists, who were teachers and got the doctor degree.

As a result, it is good and acceptable about the sequence of reading curriculum of 2009 revised version. There are two achievement standards which should be adjusted the grade placement. Standard 3-4-(5) is placed 4th grade now, but it is needed to place up one grade. Standard 7-9-(11) is placed grade 9th now, but it is needed to place down one grade. After analyzing as to 12 specific principles, there is no critical sequence problem.

KEYWORDS sequence, reading, Korean language subject, curriculum, grade placement, workshop

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2S1A5A2A01016065).